

## 문화산책

## 사람의 기억은 완벽하지 않다

강혜경

문화박사



대의 경험, 즉 집단지성이다. 광주는 바로 그 집단지성의 힘으로 공동체의 기억을 지켜내며 오늘에 이른 도시다.

1980년 5월의 비극과 항쟁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 광주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이루는 근원적 기억이다. 국가 폭력 속에서도 시민들은 서로를 지키고, 사실을 기록하며, 진실을 증언함으로써 공동체의 기억을 스스로 구축했다.

5·18은 상처의 기록이 아니라, 광주 시민의 연대·책임·집단지성이 응축된 기억의 형식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어떤 기억도 희미해지기 마련이다. 세대가 바뀌면서 과거의 간박하고 감정의 온도도 자연스럽게 옮겨진다. 예술은 추상적 기억을 감각과 시시로 바꾸어, 과거의 감정이 오늘의 관객 안에서 다시 호흡하도록 만드는 힘을 갖는다. 그리고 그 우아한 기억의 방식을 가능하게 해온 것이 바로 예술이었다.

이는 인간의 기억이 '무한 저장'이 아니라, 불러올 때마다 새롭게 조합되는 재구성의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동체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와 정신은 더욱 분명한 방식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은 이러한 사실을 과학적으로 보여준다.

새로운 정보를 접한 뒤 불과 몇 분 만에 기억의 절반을 잊고, 하루가 지나면 그 혼자의 대부분이 희미해진다는 그의 연구는, 기억이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감소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래서 공동체는 질문해야 한다. 공동체의 기억을 온전히 유지하는 일은 개인의 기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다.

정유화 작곡가는 5·18의 정서를 현대적 뮤지컬 문법으로 재해석하며 세대 간 감정의 간극을 우아하게 메웠다. 민중가요의 뿌리를 간직하되 오늘의 관객이 자연스럽게 호흡할 수 있도록 구성한 음악들은, 과거의 감정이 현재

의 몸 안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작품의 완성도가 창작자 개인의 역량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기획·대본·작곡·연출까지 전 과정을 뒷받침한 광주문화자산 콘텐츠화제작지원사업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취였다. 이제는 예술가가 지역의 문화자원을 깊이 들여다보고 해석하여 창작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정책적 기반이다.

'시민군 윤상원-님을 위한 행진곡'은 이러한 제작지원 사업이 왜 지속되고 확대되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증명한 작품이다. 광주는 풍부한 문화자산을 갖고 있지만, 이를 현대적 각각으로 재해석해 시민과 청년 세대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로 확장하는 체계는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 지속적인 제작지원은 광주를 '기억을 보존하는 도시'에서 '기억을 창조적으로 재생산하는 문화 도시'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공연의 마지막 장면, 배우와 관객이 함께 부른 '님을 위한 행진곡'은 공연의 모든 의미가 집약된 결말이었다. 그 순간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기억이 서로를 비추며 만나는 연대의 시간이었다. 무대 위에서 되살아난 그 기억은 잠시나마 우리 모두를 같은 감정선 위에 세우며, 이 도시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일깨워 주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창작 공연을 꾸준히 지원하고 도시의 문화적 자산으로 성장시키는 일은 지방정부 시대에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된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해 콘텐츠로 확장하는 이러한 시도가 앞으로 더 큰 힘을 얻어, '시민군 윤상원-님을 위한 행진곡'이 광주를 대표하는 진정한 브랜드 공연으로 오래도록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 사설

## 광주 '반도체 첨단파키징 허브' 기회 잡았다

광주가 '반도체 첨단파키징 허브도시'로 조성된다고 한다.

산업통상부가 최근 광주와 부산·경북 구미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밸리'를 만드는 내용의 '인공지능(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대만의 '반도체 클러스터 전국화'처럼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 인프라의 비수도권으로의 확산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즉 남부권의 반도체 기업과 인력을 끌어모아 향후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광주를 '반도체 첨단파키징 허브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광주에 잇는 글로벌 패키징 선도 기업과 AI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앙구 기업과 지역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연계해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키로 한 것이다. 또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420억원을 투입, 이를 뒷받침할 '첨단파키징 실증센터'를 구축해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어 대규모 설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소자 기업과 패키징 기업이 합작해 운영하는 '합작파키징 공장' 광주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인재 양성을 물론 광주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첨단 패키징 기술'이 AI 구동에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 기술로 산업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광주가 반도체 산업의 미래 머거리로 떠오른 첨단파키징 기술의 중심에 설 기회를 잡았다는 얘기다.

이 기술은 젊은 원형의 웨이퍼 형태로 생산된 반도체를 자르고 전자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형태로 조립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반도체 허브를 한데 모아 성능을 극대화하는 반도체 제조공정의 마지막 단계인 후공정 기술이다. 최근 AI기술 발전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고성능·저전력 반도체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핵심기술로 제품의 최종 성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시는 이를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과 연계해 반도체 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광주가 이제 AI와 반도체를 양 날개 삼아 국가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도시로 도약하길 기대한다.

## 천년고찰 장흥 보림사 비자림 반드시 복원을

보림사(寶林寺)는 통일신라시대인 859년 창건한 고찰로 장흥군 유치면 기자산 계곡에 위치해 있다. 이 사찰은 불교의 한 종파인 선종이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와 창건된 곳이다. 조선시대 '승유억불정책'으로 쇠락의 길을 걷다 6·25전쟁 때 대부분 소실됐다 이후 복원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 천년 고찰이다.

국보 제44호 남·북 삼층석탑 및 석등과 국보 제117호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이 있고 보물 등·서 승탑·보조선사탑·탑비 등 다수의 보물이 있다. 창건 당시 식재된 것으로 알려진 비자나무는 한때 울창한 숲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풍물이 있었지만 현재는 사찰 축조용 목재로 사용되고 주변 생태가 변화 등으로 일부만 남아 있는 상태다.

실제로 비자나무는 전북 정읍 내장산 이남의 낮은 산에 서식하는 대표적 남부수종으로, 생장이 느리고 오래 사는데다 조직이 치밀해 최고의 목재로 꼽힌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이 나무로 만든 바둑판은 최고급으로 여겨 수천만 원에 판매되기도 한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비자나무로 제작한 바둑판을 선물해 화제가 됐다.

전남도가 장흥 보림사의 비자림을 되살리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한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국비 28억원과 지방비 12억원 등 총 40억원을 투입해 총 30㏊ 규모의 비자림 복원사업을 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내년에는 타당성 평가와 실시 설계를 진행한다.

현재 복원 대상지 주변에 잠나무류가 대규모 식생하고 있어 비자나무의 정상적인 생육을 위한 복원 방법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보림사, 문화유산청, 장흥군, 복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타당성 평가 단계에서부터 복원 방법을 모색키로 했다.

1982년 산림유전자원보호법으로 지정된 이곳 비자림에는 현재 630여 그루가 보존되고 있다. 그동안 산림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2년마다 국비 6000만 원을 지원받아 수세가 약한 나무에는 영양을 공급하고, 정상적인 생육을 방해하는 주변 경합목과 위협식물을 제거하는 등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해왔다.

이번 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천년 고찰의 숲 경관과 역사성을 되살리고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기고

김동찬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 금호타이어 '함평 신공장 건설'에 기대 크다

생산 현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함평 신공장 건설'도 탄력을 받고 있어 연말 산업계의 핫 이슈가 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그동안 광주공장 부지를 매각하여 함평 빛그린산단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고수습을 계기로 '함평 신공장 건설'은 광주·전남지역의 미래거리 산업의 기관으로 별씨부터 지역사회에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함평군은 친환경 앙커기업인 금호타이어 함평공장을 통해 빛그린산단이 초광역 K-모빌리티의 중심 산단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미래핵심정책비전'을 이미 발표했다. 광주의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가 빛그린산단 함평구역까지 확대되면서 지역에 발생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금호타이어 '함평 신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유치 협약식(MOU)'이 지난 12월 9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열려 그 첫발을 내디뎠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 이상의 함평군수,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등 자치단체 관계자와 금호타이어 임직원 등이 참석해 역사적인 첫 단추를 꾸몄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남도와 함평군은 금호타이어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행정적,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금호타이어 역시 '함평 신공장 건설'을 위해 1단계로 6609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연간 타이어 530만톤 생산과 정려고무 700만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최신식 공장을 건설하게 된다. 미래형 생산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스마트 제조설비 및 친환경 공정을 보여주길 바란다.

## 취재수첩

## 취준생 '소극적 구직자 60%'의 경고음

송 대 응

경제부 차장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발표한 '2025년 대학생 취업 인식도 조사'는 청년 고용의 어려운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표면적으로는 구직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인식 조사지만 수치 하나하나가 청년들이 마주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취업난'이라는 익숙한 단어가 실제로 얼마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 준다.

조사에서 대학생 10명 중 6명이 스스로를 '소극적 구직자'로 분류했다는 결과는 무겁게 다가온다. 이는 단순히 의지가 낮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직 과정 전반에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직'을 청년들이 학습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입사 지원을 늘려도 합격률은 더 낮아지고, 준비 기간은 길어지는데 기회는 오히려 줄어드는 흐름이 반복되면서 청년들은 구직을 '의례적 절차'로 받아들이는 현실이다.

더 눈에 띄는 지점은 소극적 구직의 가장 큰 원인을 '역량·기술·지식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청년층 스스로가 자신의 경쟁력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고도화된 산업 변화에 교육과 직업훈련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여기에서 '전공 및 관심 분야 일자리 부족'과 '신입 채용 감소' 같은 응답이 이어진다는 점은 노동시장 전반의 기회 자체가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 개선 과제로 '기업 고용여건 개선'이 가장 높은 선택을 받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기업들은 규제 강화와 비용 부담 증가 속에서 신규채용 여력을 놓아가고 있고 청년들은 그 영향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결국 청년 취업난은 개인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산업·규제·채용 환경 전반을 조정해야 풀릴 문제라는 점에서 담이 명확해진다.

이번 조사는 청년들이 스스로를 소극적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보여준다.

그들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지원해도 잘 되지 않는 구조'이고 '기회 자체가 희박해지는 시장'이다. 청년층에게 필요한 것은 끝없는 자기계발이 아닌 '기능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이다. 정책의 방향도 그 지점을 향해야 한다.

##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370-7010	논설 실	370-7200			
우편번호 61234	370-7020	임원 실	370-7000			
대표전화 (062) 370-7000	370-7030	총무국	370-7093			
팩스 (062) 385-5400	370-7234	사업국	370-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370-7082	광고국	370-7070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978-7090			
		인터넷	www.GwangNam.co.kr			
		인터넷	gndn2018@naver.com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